

## 국내외 주요 뉴스 및 코멘트

## Wartsila takes action on costs as second Covid-19 wave hits

Wartsila가 COVID-19 확산세가 지속됨에 따라 지출 축소, 근로시간 단축, 임시 해고 등 조치를 단행하며 비용절감 노력에 나섰다고 보도됨. 정규인력은 최근 1년 동안 약 1천명 정도 줄었다고 보도됨. 신조선 계약 건수는 2019년 1,153건에서 2020년 815건으로 크게 줄었다고 보도됨. (TradeWinds)

## Capacity squeezed: Equinor under pressure to sell oil and gas assets

노르웨이의 국영 석유 업체 Equinor가 효율적인 자원 개발에 대한 필요성으로 Oil 또는 Gas 관련 자산에 대해 매각을 고려하고 있다고 보도됨. 2020년 노르웨이 의회가 에너지 생산업자에 대한 세금 감면 등 지원노력을 해줬음에도 불구하고, Equinor의 자산에 대해 높은 신용등급으로 이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일부 자산에 대한 매각은 불가피하다고 보도됨. (Upstream)

## Singapore rig-building giant to exit the business

싱가포르의 Keppel사가 Global 에너지 패러다임의 변화와 Oil 시장 붕괴로 인해 해양 rig 사업을 포기하는 수순에 이르렀다고 보도됨. Keppel은 Offshore & Marine business 관련 자산을 매각하는 등 사업부 개편을 시작했다고 보도됨. (Upstream)

## Clarksons Platou says fears of boxship rate drop 'overblown'

Clarksons는 컨테이너 운임 급락에 대한 우려는 기우라고 밝힘. Maersk 기준으로 현재까지 2021년 평균 운임은 feu 당 3,200달러로 추정되며 아직까지 컨테이너 선사들에게 유리한 상황이 지속되고 있다고 보도됨. (TradeWinds)

## LNG선 시황 금년 말까지 낙관적

LNG선사들은 2분기는 물론 하반기 시황도 낙관적으로 전망하고 있다고 보도됨. Baltic Exchange LNG 운임 지수는 아시아 지역의 LNG 가격 하락으로 1월 초 강세에서 다소 수그러든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 보도됨. (선박뉴스)

## 현대건설기계, 중국 UN사와 지게차 생산 제휴...신흥시장 공략

현대건설기계는 중국 UN사와 주문자상표부착생산(OEM)을 위한 전략적 제휴를 체결했다고 보도됨. UN사는 중국 저장성에 있는 지게차 전문 생산업체로, 연간 1만여 대의 중소형 지게차 생산능력을 갖추고 있기 때문에 현대건설기계는 2025년까지 중국 OEM 제품의 매출을 1억 달러까지 늘릴 방침이라고 보도됨. (연합뉴스)